

## 접속부사어 ‘이때/그때’ 연구\*

서 반 석\*\*

본고는 접속부사어로 사용되는 ‘이때/그때’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그때’는 ‘이때에/그때에’에서 조사가 생략된 형태인 것으로 흔히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때/그때’의 용법 중 ‘이때에/그때에’의 조사생략형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 전자를 ‘이때/그때<sub>1</sub>’, 후자를 ‘이때/그때<sub>2</sub>’라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이 각각 배경적 정보, 전경적 정보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때/그때<sub>1</sub>’의 경우 후행문에 비완망상이 주로 나타나지만, ‘이때/그때<sub>2</sub>’는 완망상이 나타난다. 또한 ‘이때/그때<sub>1</sub>’은 지시하는 시간 간격이 넓은 편이지만, ‘이때/그때<sub>2</sub>’는 선행문 사건의 한 순간을 좁게 포착한다. 그리고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은 화제-초점의 구조를 가진 정언문이며,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은 초점 정보만을 가진 제언문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이 ‘비완망상, 넓은 시간 간격, 정언문’의 특성을 갖는 것은 배경적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이 ‘완망상, 좁은 시간 간격, 제언문’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전경적 정보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핵심어: 접속부사, 상, 완망, 비완망, 정보구조, 정언문, 제언문, 전경, 배경

\* 이 논문은 국어학회 제43회 전국학술대회(2016. 12. 16, 인하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큰 폭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충고를 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서론

한국어의 부사에 대한 연구는 최현배(1937/1971)과 같은 초기의 문법서로부터 최신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의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 모을 수 있는 부류가 단어로부터 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성을 보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도 형태·통사·의미·텍스트에 이르기엔, 아직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의 규모가 크고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이 다양하기에,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접속부사’의 상위 개념에 해당되는 ‘문장부사’에 대해서도 김선호(2005)와 같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신서인(2011)과 같이 존재의 타당성을 변호하는 논의도 있었다. 또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때’나 ‘그때’를 부사의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서정수 2005)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임유종 1999)도 있다. 손남익(1995)의 경우, ‘입때, 입때껏, 접때, 접때에’가 부사 목록에 보이지만 ‘그때’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즉, 부사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부분으로부터 미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의견들과 관점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이때’와 ‘그때’에 천착해보기로 한다. 기존의 관점에서 이들은 명사에 조사가 결합한 ‘이때에/그때에’의 조사생략형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때에/그때에’로 대치되기 어려운 용법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사 연구의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관점들 사이에서 발생한 작은 맹점(盲點)을 메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 2. 본론

### 2.1. 기본 논의

#### 2.1.1.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설정

상기한 바와 같이 본고의 연구대상은 접속부사어로 기능하는 ‘이때’와 ‘그때’이다. 이 연구대상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의문은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즉, ‘이때/그때’와 같은 계열로 생각되는 ‘저때’를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현대국어에서는<sup>1)</sup> ‘저때’가 접속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1)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는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저때 영화는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접속부사어 역할을 하는 ‘이때/그때’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이 위치에 ‘저때’가 들어오면 표현이 매우 어색해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매우 한정된 맥락에서만 사용된다고 보아, ‘저때’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면 ‘이때/그때’를 ‘접속부사’라 할 수 있을까? 우선 본고는 ‘접속부사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와 관점에서 이견들이 있으며, 그 각각만으로도 단일한 논의가 될 수 있을 만큼 생각할 거리가 풍부하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은 본고가 의도한 목표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접속부사의

1) 16세기, 17세기 자료에서는 문두 부분에 나타나는 소수의 ‘더때’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것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때/그때’와 비슷한 기능을 보이는지는 정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접속부사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에서 개념 정의가 시도되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접속부사는 선행 문장의 의미를 후행 문장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를 가리킨다(장기열 2003: 176).

(2)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는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

(2)의 후행문에 나타나는 '이때/그때'는 '선행문과 동시간적(同時間的)'이라는 의미를 후행문에 부가해준다.<sup>2)</sup> 다시 말해, 동시간성을 가진 선행문과 후행문이 '이때/그때'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 '이때/그때'는 분명히 접속부사어의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그런데 문장에서의 기능이 '부사어'라 하더라도, 해당 어휘가 반드시 '부사'라는 단언은 할 수 없다. 명사 역시 조사의 도움을 받아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그때'가 '부사'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때/그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 
- 2) '이때/그때'가 시간을 참고하는 '선행문'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인 것이 가장 기본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앞에 있는 문장에서 시간을 참고하거나 혹은 참고하는 시간의 범위가 문장 이상의 단위에 걸쳐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때/그때'의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경우들을 일단은 배제하고, '이때/그때'가 바로 앞의 문장으로부터 시간을 참고하는 경우들만 다루기로 한다.
- 3) 여기에서 '이때/그때'의 기능이 '접속'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현재 대표적인 접속부사로 예시되는 '그러나, 그러면, 그렇지만, 그러므로' 등도 '선행문을 대용하는 용언이 통사적으로 후행문의 부사어 위치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점차 부사로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행 내용을 지시한다'는 점과 '통사적으로 후행문의 부사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때/그때'의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때/그때'를 접속부사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3) ㄱ. 이때 : [명사] 바로 지금의 때. 또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

그때 : [명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

ㄴ. 이때 : [명사] 바로 앞서 언급한 사건이 일어난 때. 화자가 말하는 바로 지금의 때.

그때 : [명사] 과거나 미래의 특정한 시기나 순간.

(3ㄱ)은 <표준국어대사전>, (3ㄴ)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이때/그때’의 사전적 의미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사전의 관점에서서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이때/그때’가 ‘이때에/그때에’와 같은 ‘명사+부사격조사’ 구조에서 조사가 생략된 경우로 처리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리는 비단 사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남익(1995), 임유중(1999) 등 부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의들에서도 ‘이때/그때’가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때/그때’를 ‘이때에/그때에’의 조사생략형으로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상 많은 경우에 ‘이때/그때’는 ‘이때에/그때에’로 대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략된 조사 ‘에’를<sup>4)</sup> 복구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sup>5)</sup>

(4)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는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영화는 결승점에 도착해

4) 여기서 생략된 조사가 반드시 ‘에’일 것이라는 필연성은 없다. 주격조사, 목적격 조사와는 달리 부사격조사의 위치에는 의미에 따라 다양한 조사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때/그때’ 구문 전체의 의미에 대체로 적합한 부사격조사가 ‘에’라 판단했기에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5) 덧붙여, 한국어에서 부사격조사는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에 비해 생략이 어렵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의미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사용되는 조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사어로 사용되는 ‘이때/그때’를 ‘부사격조사가 결합한 명사구에서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완전히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있었다.

(4)는 (1)의 예를 다시 가져온 것이다. (4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때/그때’는 조사를 복구한 ‘이때에/그때에’로 대치해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를 보자.

- (5)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 영화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에 영화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ㄴ.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ㄴ’.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에 여우가 나타났다.

(5ㄱ)에 사용된 ‘이때’의 경우, (5ㄱ’)과 같이 조사를 복구한 ‘이때에’로 대치하게 되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진다. 이는 (5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5ㄴ’)처럼 ‘그때에’로 대치하는 것은 유효적이고 어색한 느낌이 강하다.<sup>6)</sup> 즉, ‘이때에/그때에’의 조사생략형에 해당되는 ‘이때/그때’도 있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이때/그때’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이때/그때<sub>1</sub>’, 후자의 경우를 ‘이때/그때<sub>2</sub>’로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이때/그때<sub>1</sub>’은 ‘이때에/그때에’의 조사생략형이므로 명사에 해당되며, ‘이때/그때<sub>2</sub>’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하므로 부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6) 이 문장들의 자연스러움은 개인의 직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다만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비전공자 포함) 21명에게 (5)의 예들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았을 때, ‘이때/그때’를 선택한 사람은 17명이었고 세 명은 경우에 따라서 ‘이때에/그때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으며, 단 1명만이 두 경우 모두 자연스럽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이때/그때’ 중에 조사를 복구했을 때 어감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둘째, 그러나 그 차이는 선호의 정도이며 문법성을 갈라놓을 만큼 크지는 않다.

7) 문법성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두 경우에 대해 별개의 품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때/그때’의 현재 상황이 변천의 한 단계에 해당된다고 본다. 즉, 본디 이들은 단일한 조사생략형이었지만 차츰 용법의 한 부분이 독자적인 특성을 획득하면서 ‘이때/그때<sub>2</sub>’로 ‘부사화’되는 과

위의 (5)에서 확인되는데, 이 두 경우는 문법적 직관에 의해서는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5ㄱ', ㄴ')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정도가 화자에 따라 다르며, 이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을 비문이라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요소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각각의 특징이 문장의 특성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문장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각각의 경우로 해석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 접속부사어로 사용되는 ‘이때/그때’의 기능 아래에서 선후행문의 특성에 따라 ‘이때/그때<sub>1</sub>’로 해석되는 경우와 ‘이때/그때<sub>2</sub>’로 해석되는 경우가 나누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를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적용한 예문들을 접하면서 그 윤곽을 조금씩 뚜렷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관찰에 선행해야 하는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차이가 선호도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문법성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진행을 위해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차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기에, 다소 성급하지만 품사를 따로 부여하였다.

- 8) 신서인(20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흔히 부사성 명사로 불리는 일군의 명사들은 수식어와 조사의 도움 없이 부사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때/그때<sub>2</sub>’를 부사로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떤 요소가 수식어나 조사, 어미의 도움 없이 부사어로 기능한다면 이를 부사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처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명사-부사의 다의어로 처리하거나 ‘부사 용법을 획득하는 과정’이라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신서인(2010)에서도 ‘결국’과 같은 부사성 명사가 단독으로 부사어 기능을 할 경우에는 부사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판정한 바 있다.

### 2.1.2. ‘이때/그때’의 특성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 정리

앞서 ‘이때/그때’의 접속부사적 기능이 후행문에 ‘선행문과 동시간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로 보아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의미는 선행행문의 시상(時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시상과 관련된 조건들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우선 시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한국어가 시제 언어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2분 체계(과거/비과거), 3분 체계(과거/현재/미래) 등 체계에 대한 논란, 어디까지가 시제이며 어디까지가 상인가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견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상에 대해서도 한국어에 어떠한 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처럼 시상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도 대규모의 논의가 가능한데,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구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보구조나 인지적 개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역시 각각에 대한 탐구만으로 개별적인 논의를 이룰 만한 규모의 주제들이다. 그러므로 기본 개념에 대해 지나치게 깊게 파고드는 것은 본고의 목표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시제와 상, 정보구조, 전경화/배경화와 관련된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논의를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존의 견해를 탐색해보기로 한다.

#### 1) 시제와 상

우선 본고에서는 미래 시제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는 흔히 한국어에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로 보는 ‘-겠-’과 ‘-을 것이-’에는 양태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미묘한 의미 차이를 찾아야 하는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구분에 방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 시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구



분이 분명해진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시제는 ‘과거’와 ‘현재’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박진호(2011)에 제시된 상 체계를 가져오기로 한다. 이는 한국어의 상에 대해 정연하게 정리된, 비교적 최근의 논의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에는 크게 결과상(resultative aspect)과 연속상(continuous aspect)이 나타나며, 이를 나타내는 요소는 아래의 표와 같다.<sup>9)</sup> 또한 어휘상에 대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라 생각되는 Vendler(1967)을 토대로 하기로 한다.<sup>10)</sup>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제 <sup>11)</sup>	과거	-었-
	현재	-는-
상	결과상	-어 있-
	결과상	-고 있 <sub>1</sub> -
	연속상	-고 있 <sub>2</sub> -
어휘상에	행위동사	뛰다, 쏘다 등

9) 박진호(2011: 301-302)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어 있-’과 ‘-고 있<sub>1</sub>-’이 흔히 완료상이 갖는 용법을 모두 갖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를 결과상이라 밝혔다. 또한 ‘-고 있<sub>2</sub>-’의 경우, ‘정태동사(static verb)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이것이 진행상이 아닌, 연속상의 표지임을 말했다.

10) Vendler(1967)에서는 술어를 상태성(stativity), 종결성(telicity), 순간성(punctuality), 동질성(homogeneity)라는 네 가지의 기준으로 상태(state), 행위(activity), 달성(achievement), 완성(accomplishment)이라는 네 상적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상태성은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어떠한 동작이나 변화가 있는 사건을 나타내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종결성은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 본질적으로 사건의 최종적 종결점(endpoint)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상태동사만이 상태성을 갖고 나머지는 갖지 않으며, 종결성은 완성동사와 달성동사만이 갖는다. 순간성은 사건에 나타난 변화가 어떤 한 시점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동사의 경우에는 변화의 과정이 사건 전체에서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달성동사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사건 전체에서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완성동사는 순간성을 갖지 않는 반면, 달성동사는 갖는다(김윤신 2006: 34-35 참조).

따른 동사 부류 <sup>12)</sup>	완성동사	만들다, 짓다 등
	달성동사	도착하다, 죽다 등
	상태동사	예쁘다, 멋있다 등

본고에서는 이상의 조건들을 각각 ‘이때/그때’의 선행문과 후행문에 적용하여 다양한 예문들을 만들어 보고 이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2)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와 정언문/제언문(categorical sentence/thetic sentence)

다음으로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의미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해두기로 하자.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에서는 정보구조와 관련된 의미론적인 특징들도 관찰된다. 현대 국어에서 조사 ‘은/는’은 구정보와, ‘이/가’는 신정보와 결합한다는 점은 상식에 가까울 만큼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 양상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리 단순하게 정보의 신구성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 11) 여기서는 시제를 ‘과거-현재’로 나타냈는데, 본고에서는 상기의 이유로 ‘미래시제’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2분 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3분 체계에서 ‘미래’를 제외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미래시제를 적용한 ‘이때/그때’의 용법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 12) 김윤신(2004: 50-51)에서는 Dowty(1979) 등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 외에도 정도 달성동사, 재귀적 달성동사, 심리달성동사 등을 동사 부류에 포함시켰다. 정도 달성동사는 지속부사와의 결합 가능성에서, 재귀적 달성동사는 ‘-고 있-’과의 결합이 ‘과정의 계속’과 ‘결과상태의 지속’을 중의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심리달성동사는 ‘-고 있-’과의 결합이 ‘결과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달성동사와 변별된다. 그러나 해당 특성들은 본고의 논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본고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박진호(2011)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각 달성동사들의 특성들은 ‘-고 있<sub>1</sub>-’과 ‘-고 있<sub>2</sub>-’의 용법들이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동사들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결합하는 ‘-고 있-’의 속성이라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여타의 달성동사 부류들을 동사 부류에서 제외하였다.

학자에 따라 해석에도 차이를 보인다.<sup>13)</sup>

전영철(2006)에서는 한국어에서 구정보와 신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인 주어집성(givenness)은 관계적(relational) 주어집성과 지시적(referential) 주어집성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지시적 주어집성은 언어 표현에 대응되는 지시대상이 머릿속에서 얼마나 친숙한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관계적 주어집성은 문장의 의미와 개념적 표상이 X는 ‘문장이 X에 대한 것’이고 Y는 ‘X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 이들의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주어집성이라 할 수 있다.

전영철(2006)에서는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한국어의 정보구조가 관계적 주어집성과 관련된 된다고 주장하였다.

〈표 2〉

관계적 구정보(화제)	관계적 신정보(초점)
지시적 구정보	지시적 신정보

이에 따르면 지시적으로 주어진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관계적 구정보(화제)가 되지만 문맥에 따라 관계적 신정보(초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반드시 지시적으로 주어진 정보이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전영철(2006, 2009, 2013b)의 견해를 받아들여 한국어의 정보구조가 관계적 주어집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언문’과 ‘제언문’ 개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6)  $\neg$ . John is intelligent.

$\neg$ . It is raining.

13)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 흐름과 쟁점에 대해서는 杜林林(2014: 12-17)에 정리되어 있다.

(6ㄱ)은 우선 ‘John’이라는 개체가 부각된 후, 이 개체에 대해 ‘is intelligent’라는 속성이 부가되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6ㄴ)은 어떤 개체에 대한 진술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날씨라는 한 상황이 인식되는 단일 단계로 구성된다(전영철 2013b: 100). (6ㄱ)과 같이 정언적 판단(이중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을 정언문, (6ㄴ)과 같이 제언적 판단(단순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을 제언문이라 한다.<sup>14)</sup>

정언문/제언문 개념과 정보구조는 학자에 따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어의 정언문/제언문에 대한 최신의 연구로는 전영철(2013b)가 있다. 여기서는 정언문/제언문 개념과 정보구조가 관련을 갖는다는 관점을 취하였는데, 화제와 초점이라는 두 종류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언문, 초점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제언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영철(2013b)에 따르면 ‘은/는’이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정언문으로 처리되며, ‘이/가’ 구문의 경우에는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의 ‘이/가’가 사용된 경우는 제언문, 확인초점(identification focus)의 ‘이/가’가 사용된 경우는 정언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본고에서는 전영철(2013b)의 관점을 받아들여 정언문/제언문의 판단이 정보구조와 관련성

14) 정언문, 제언문의 개념과 유래에 대해서는 謝禮(2014: 42-43)에서 정리한 바 있다.

15) 전영철(2013b)에 따르면 ‘이/가’의 용법은 정보초점을 나타내는 경우와 확인초점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예) ㄱ. 비가 온다.

ㄴ.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ㄷ. Q: 누가 왔니?

A: 철수가 왔어요.

위의 예에서 ㄱ과 ㄴ은 정보초점의 ‘이/가’가 사용된 경우인데, 이들은 ‘무슨 일이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어떤 사건을 하나의 단 위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반면 확인초점의 ‘이/가’가 사용된 ㄷ의 경우, 의 문사에 대한 대답인 ‘철수’는 초점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질문에서 이미 드러난 정보이므로 화제적 정보에 해당한다.

을 갖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은/는’과 확인초점의 ‘이/가’가 사용된 경우는 정언문, 정보초점의 ‘이/가’가 사용된 경우는 제언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 3) 전경화(foregrounding)와 배경화(backgrounding)

이제 마지막으로 ‘전경화/배경화’ 개념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사태를 파악할 때 그 일면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어서 언어화한다. ‘전경(figure)/배경(ground)’의 개념은 형태 심리학자들에 의한 지각의 조직 원리로서, 우리가 사물을 파악할 때 바탕이 되는 ‘배경(ground)’에서 지각적으로 두드러지고 현저한 ‘전경(figure)’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임지룡 2008: 422). 그리고 ‘전경화’란 대상이나 사태의 한 측면이 주의나 관심의 초점, 즉 전경으로 묘사되는 것이며, ‘배경화’는 주의나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잔디를 깎는 기계의 날이 돌에 부딪혀서 튀어나간 돌이 유리창을 깬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에 대해 “내가 잔디를 깎다가 유리창을 찼어.”라고 할 수도 있고, “잔디를 깎다가 돌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졌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문장들은 명제적으로 동일한 사태를 표현한다. 다만 전자는 사건 속에서 ‘나’의 역할을 전경화하고 ‘돌’의 역할은 배경화하고 있으나, 후자는 ‘돌’을 전경화하고 ‘나’는 배경화하고 있다(Tsujii 2004: 195).

본고에서는 ‘이때/그때’의 종류에 따라 선후행절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전경화/배경화의 성격과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에는 배경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은 전경적인 정보가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실례(實例)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특성들을 확인해가기로 한다.

## 2.2.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특성 분석

### 2.2.1. 시제, 상, 부사와의 공기(cooccurrence)

‘이때/그때’와 관련된 예들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독특한 점은 선행행문에 과거시제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점이다.<sup>16)</sup>

- (7) ㄱ. 철수가 달렸다. 이때/그때 영화는 역에 도착했다.  
 ㄴ. <sup>??</sup>철수가 달린다. 이때/그때 영화는 역에 도착했다.  
 ㄷ. 철수가 달렸다. <sup>??</sup>이때/그때 영화는 역에 도착한다.  
 ㄹ. <sup>?</sup>철수가 달린다. 이때/그때 영화는 역에 도착한다.

선행행문에 과거시제를 동반하고 있는 (7ㄱ)의 경우 아무런 어색함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선행행문에 현재시제를 상정한 (7ㄴ)은 자연스러움이 조금 부족하며, 소설 등에서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제를 바꾸는 경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후행문에 현재시제를 부여한 (7ㄷ)의 경우도 (7ㄴ)과 비슷하다. 선행행문 모두에 현재시제가 온 (7ㄹ)의 경우, 회곡의 지문이나 특정한 텍스트의 기술 방법으로는<sup>17)</sup>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생산할만한 구문은 아니다. 즉, 선행행문에 과거시제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이는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 모두에 해당되는 특성이다.

16) 본고에서 다룬 예문들은 개인의 직관에 따라 수용 여부에 차이가 난다. 그렇기에 예문을 판단할 때 문법정보보다는 수용 가능성이나 선호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로 표시된 예는 비문법적이라기보다는 수용 가능성이나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설문을 통해 지인 10명(국어학 전공자)에게서 각 예문들에 대한 직관을 확인받아 수용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설문에서 수용 가능성은 ‘아주 자연스러움/매력이 잘 주어지면 자연스러움/용인될 수 있으나 본인은 사용하지 않을 표현/어색한 편/수용 불가’의 다섯 척도로 구분하였다.

17) 심사과정에서 해당 예문이 ‘역사적 현재의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역시 텍스트나 사용역에 따른 한정적인 용법이라 보았다.

다음으로 선행행문의 상적 속성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는 연속상/결과상과의 자연스러운 공기에 차이를 보인다. 후행문에 연속상이나 결과상 표지가 올 경우, ‘이때/그때’는 대체로 ‘이때/그때<sub>1</sub>’로 해석된다.

- (8)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는 역에 도착해 있었다.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영화는 역에 도착해 있었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는 도착하고 있었다.<sup>18)</sup>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영화는 역에 도착하고 있었다.

(8ㄱ)은 후행문에 결과상을 상정한 경우인데, (8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이때/그때’는 ‘이때에/그때에’로 대치해도 아주 자연스럽다. 즉, 이 경우는 ‘이때/그때<sub>1</sub>’에 해당된다. (8ㄴ)은 후행문에 연속상이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역시 ‘이때/그때’는 (8ㄴ’)과 같이 ‘이때/그때에’로 대치 가능한 ‘이때/그때<sub>1</sub>’이다.

- (9) ㄱ.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ㄱ’.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sup>??</sup>이때에/그때에 여우가 나타났다.  
 ㄴ.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그때 (수풀 사이에는) 여우가 나타나 있었다.

18) 김윤신(2004: 51)에 따르면 전형적인 달성동사는 ‘-고 있-’과의 결합에서 ‘전체 사건반복’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도착하다’의 경우 ‘-고 있-’과의 결합이 ‘과정의 계속’으로 해석되기 쉽다. 이러한 점은 김윤신(2004: 48-49)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를 ‘도착하다’ 동사의 의미의 확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연속상’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데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아, 이러한 예문을 용인했다. 단, 달성동사 본연의 특징을 나타내야 하는 경우 즉, ‘-고 있-’과의 결합이 사건의 반복을 나타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사를 사용했다.

ㄴ'.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수풀 사이에는)  
여우가 나타나 있었다.

(9ㄱ)의 ‘이때/그때’는 (9ㄱ')과 같이 조사를 복구할 경우 조금 부자연스러워지므로 ‘이때/그때<sub>2</sub>’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해당 후행문에 결과상을 상정한 (9ㄴ)의 경우, (9ㄴ')처럼 조사를 복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즉, 이 경우에 ‘이때/그때’는 ‘이때/그때<sub>2</sub>’가 아닌 ‘이때/그때<sub>1</sub>’에 해당된다.

(10)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영화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고 있었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영화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고 있었다.

(10ㄱ)의 ‘이때/그때’는 대체로 ‘이때/그때<sub>2</sub>’로 해석된다. 이는 (10ㄱ')과 같이 조사 ‘에’를 복구했을 경우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지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후행문에 연속상을 부여한 (10ㄴ)의 경우 (10ㄴ')처럼 ‘이때/그때’에 조사를 복구해도 아무런 부자연스러움이 없다. 즉, 이 경우는 ‘이때/그때<sub>1</sub>’에 해당된다.

요컨대 후행문에 연속상이나 결과상이 올 경우 ‘이때/그때’는 ‘이때/그때<sub>1</sub>’로 해석되며, ‘이때/그때<sub>2</sub>’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때/그때’의 후행문의 상적 속성은 ‘완망상(perfective aspect)’과 ‘비완망상(imperfective aspect)’의 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박진호(2011: 304)에 따르면 완망상은 사태를 멀리서 하나의 점처럼 바라보는 것이고, 비완망상은 가까이에서 사태의 내적 시간 구조나 전개 양상에 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다. 연속상의 경우, 사태가 진



행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비완망적인 상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결과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연속상과 결과상은 동일하게 비완망적인 상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은 비완망의 상적 특성을 가지며,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에서는 완망적인 상적 특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담화 층위에서는 비완망상은 담화(이야기)에서의 배경적 정보를 서술하고 완망상은 전경적 정보를 서술하는 데 쓰이는 경향이 있다. 즉, 비완망상을 취하는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은 배경적 정보를, 완망상을 취하는 ‘이때/그때<sub>2</sub>’의 경우에는 전경적 정보를 기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진호(2011: 304)에서는 서사 담화에서 완망상은 스토리를 진전시키는 주된 사건을 나타낼 때 쓰이고, 비완망상은 배경적인 정보를 제시할 때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때/그때’의 후행문에서는 그러한 양상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확인해가기로 한다.

또 다른 현상으로 ‘이때/그때’와 부사 ‘이미, 한창’과의 공기(共起)가 능 여부를 들 수 있다. ‘이때/그때<sub>1</sub>’와 ‘이때/그때<sub>2</sub>’는 부사 ‘이미, 한창’과의 공기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 (11)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는 이미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
-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영화는 이미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
-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는 한창 결승점에 도착하고 있었다.
-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영화는 한창 결승점에 도착하고 있었다.
- ㄷ.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가 <sup>??</sup>이미/한창 새충으로 철수를 쏘았다.

(11ㄱ)의 후행문은 결과상이기에 의미상 ‘한창’보다는 ‘이미’가 더 자연스럽다. (11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이때/그때’는 ‘이때/그때<sub>1</sub>’에 해당된다. (11ㄴ)의 경우 후행문에 연속상이 오기에 ‘한창’이 의미상 어울리는데, (11ㄴ')을 통해 여기서 사용된 ‘이때/그때’가 ‘이때/그때<sub>1</sub>’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때/그때<sub>2</sub>’가 나타난 (11ㄷ)의 경우, ‘이미, 한창’과의 공기가 부자연스럽다.

이 현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한창’의 경우 ‘어떤 일이 가장 왕성하고 활기 있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행동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 연속상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그때<sub>2</sub>’는 연속상과 함께 나타나는 것에 제한이 있으므로, ‘한창’과의 공기가 어색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다.

(12) ㄱ. 영화가 이미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ㄱ'. 영화가 이미 새총으로 철수를 쏘고 있었다.

ㄴ. <sup>??</sup>그때 영화가 이미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sup>19)</sup>

ㄴ'. 그때(에) 철수는 이미 밥을 먹었었다.

ㄷ. 그때에 (관중석에서는) 영화가 이미 새총으로 철수를 쏘고 있었다.

‘이미’의 사전적 의미는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결과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경우에 ‘이때/그때<sub>2</sub>’와 함께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쉽게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2ㄱ, ㄱ')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건들을 완결된 것으로 인식한다면 충분히 타당해질 수 있다.

문제는 (12ㄴ)과 같이 단순 과거시제일 때 ‘이미’와 ‘이때/그때(이때/

19) 설문 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어색한 편’이라 보았으나, ‘아주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었기에(2명) 이와 같이 표시하였다.

그때<sub>2</sub>)’가 함께 나타나면 어색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12ㄷ)과 같이 연속상이 나타나면 이 어색함이 해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이때/그때’가 갖는 ‘선행문 사건과의 동시간성’이 ‘이미’가 갖는 ‘완결되었거나 지나간 일’의 의미와 충돌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렇기에 동일한 조건에서 더욱 앞선 시간의 사건으로 시제를<sup>20)</sup> 상정한 (12ㄴ’)의 경우는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sup>21)</sup> (12ㄷ)과 같이 연속상이 나타날 경우, 행위의 시작점이 ‘이때/그때’가 지시하는 시간보다 과거에 있기에 ‘이미’와의 공기가 가능한 것이라 생각될 수 있다.<sup>22)</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이때/그때’는 과거시제와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때/그때<sub>1</sub>’은 후행문에 연속상과 결과상, 즉 비완망상이 주로 나타나지만, ‘이때/그때<sub>2</sub>’는 이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은 완망상의 상적 속성을 띤다. ‘이때/그때<sub>1</sub>’은 ‘이미, 한창’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지만, ‘이때/그때<sub>2</sub>’는 이들과의 공기가 부자연스럽다.<sup>23)</sup>

20) ‘있었-’을 ‘대과거’ 등의 시제 요소로 볼 것인가, 더 나아가 ‘한국어에 대과거 시제를 설정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표와는 크게 관련되지 않으므로, ‘시간 속의 한 지점을 지시한다’는 속성만을 부각하여 ‘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1) 이 경우 역시 ‘이때/그때’는 조사를 복구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즉, ‘이때/그때<sub>1</sub>’이다. 이는 ‘이미’와 공기가 가능한 ‘이때/그때’를 ‘이때/그때<sub>1</sub>’로 보았던 상기의 내용과 부합한다.

22) 장채린(2013: 287-289, 292)에서는 ‘이미’가 ‘상황의 변화가 있는 시간’을 참조시로 요구하며, ‘이미’가 가리키는 시간은 참조시 이전부터라 주장하였다. 본고에서 말한 ‘행위의 시작’은 장채린(2013)의 ‘상황 변화 시간’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므로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선희(1987), 임유중(1999), 박혜승(2016)에서는 ‘이미’가 완료상과 관련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본고의 관점과 일치한다.

23)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때/그때’와 ‘이미, 한창’이 공기하기 위해서는 후행문에 비완망상이 와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와 ‘한창’이 갖는 의미가 비완망적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결과이며, 이러한 이유로 비완망상과 어울리지 않는 ‘이때/그때<sub>2</sub>’는 ‘이미, 한창’과 공기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

## 2.2.2. 동사 부류와 시간 지시

‘이때/그때’는 선행행문이 동시간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후행문은 선행문의 사건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 ‘시간’의 모양은 동사 부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가 취하는 모양도 각각 다르다.

‘이때/그때’는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을 포착한다고 인식되어왔는데, 서정수(2005)에서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많은 경우 ‘때’를 ‘순간’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부터도 확인된다.

- (13)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그때 영희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영희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나.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나.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 순간 여우가 나타났다.<sup>24)</sup>

그러나 선행문 동사의 사건이 넓은 시간 간격을 나타낼 때, 후행문 동사도 이에 비례하는 시간 간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선행행문에 완성동사가 오는 경우에 주로 관찰된다.

- (14) ㄱ. 철수가 집을 지었다. <sup>2/??</sup>이때/그때 영희가 노래를 불렀다.  
       나. 철수가 집을 지었다. 이때/그때 (그 옆에서는) 영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다. 철수가 집을 지었다. 이때/그때 영희는 음식을 만들었다.

(14ㄱ)의 선행문 동사인 ‘짓다’는 동사의 의미 안에 완성까지의 점진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즉, 이 경우 후행하는 ‘이때/그때’가 취하는 선행문

24) 다만 ‘이때’를 ‘이 순간’으로 바꾸는 것은 경우에 따라 어색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대치가 부자연스럽다는 점이 ‘이때’가 갖는 ‘짧은 시간을 포착하는 의미’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의 시간은 그 간격이 넓다.<sup>25)</sup> 이에 후행하는 동사가 갖는 시간 간격과의 격차 때문에 어색함이 발생한다. ‘집을 짓는 행위’가 거의 순간적으로 완료되지 않는 한, 이 예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반면 후행하는 동사가 연속상을 취하고 있는 (14ㄴ)의 경우에는 어색한 느낌이 없다. 이는 연속상이 취하는 시간적 간격이 넓기에 선행문과의 시간 간격과 격차가 적어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14ㄷ)의 경우, 선행문의 동사와 후행문의 동사가 동일한 부류(완성동사)이기에 시간 간격의 격차가 크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4ㄴ, ㄷ)의 ‘이때/그때<sub>1</sub>’가 조사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 ‘이때/그때<sub>1</sub>’이라는 점이다.

한편 선행문에 연속상이나 결과상이 나타나면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15) ㄱ. 철수가 집을 짓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가 새충을 쏘았다.

ㄴ. 철수가 땅에 누워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가 새충을 쏘았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동사에 연속상이 결합하면 해당 동사가 나타내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그 시간 간격은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5ㄱ)의 경우 ‘이때/그때’가 취하는 시간 간격은 상당히 좁게 느껴진다. 또한 후행하고 있는 동사도 그 시간 간격이 대단히 좁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상이 사용된 (15ㄴ)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런데 이 두 경우, ‘이때/그때’는 어떤 시간의 ‘간격’을 취한다기보다는 선행문 사건의 어느 한 ‘시간적 지점’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집을 짓고 있는(땅에 누워 있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어느 한 순간을 지시하면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을 후행문에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때/그때’는 조사생략형이 아닌 ‘이때/그때<sub>2</sub>’이다.

이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이때/그때’는 선행문과 후

25) 이 경우, ‘때’를 ‘순간’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어색하다. 이 점 역시 이 경우 ‘이때/그때’가 취하는 시간 간격이 넓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행문의 사태가 동일한 시간에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때/그때<sub>1</sub>’의 경우에는 비교적 넓은 시간 간격을 지시하지만, ‘이때/그때<sub>2</sub>’는 선행문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 속의 한 지점을 지시한다.

이러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ㄱ. 철수가 집을 짓고 있었다. 이때/그때<sub>1</sub> (옆에서는) 영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ㄴ. 철수가 집을 짓고 있었다. 이때/그때<sub>2</sub> 영희가 노래를 불렀다.<sup>26)</sup>

(16)에서 선행문은 동일하게 연속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16ㄱ)의 전체 의미는 ‘철수가 집을 짓고 있는 시간 동안 영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16ㄴ)은 ‘철수가 집을 짓는 동작을 하고 있는 어느 순간 영희가 노래를 불렀다(부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sup>27)</sup>

상태동사의 경우 ‘이때/그때’ 구문에서의 사용이 크게 제약되는데, 이 점 역시 시간적 속성과 관련된다.

(17) ㄱ. 철수는 멋있었다. \*이때/그때<sub>2</sub> 영희가 새총을 쏘았다.

ㄱ'. 철수는 멋있었다. \*이때/그때<sub>1</sub> 영희는 새총을 쏘고 있었다.

ㄴ. 철수는 멋있었다. \*이때/그때 영희가 역에 도착했다/도착하고 있었다.

ㄷ. 철수는 멋있었다. \*이때/그때 영희는 집을 지었다/짓고 있었다.

ㄹ. 철수는 멋있었다. ?이때/그때<sub>1</sub> 영희는 예뻐다.

26) 이 예에 대해서는 어색하다는 의견(1명)도 있었다.

27) 이러한 성격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그때<sub>1</sub>’의 경우에는 ‘그동안’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때/그때<sub>2</sub>’는 이러한 대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때/그때<sub>2</sub>’는 대체로 ‘그 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때/그때<sub>1</sub>’은 그것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

선행문에 상태동사가 올 경우 행위동사가 후행하면 (17ㄱ)과 같이 전체적으로 어색해진다. 이는 ‘이때/그때<sub>1</sub>’을 상정한 (17ㄱ')도 마찬가지이다. (17ㄴ)의 탈성동사, (17ㄷ)의 완성동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다. (17ㄷ)과 같이 후행문에도 상태동사가 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으나<sup>28)</sup>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다.

(18) ㄱ. ??/\*철수가 달렸다. 이때/그때 영화는 예뻤다.

ㄴ. ??철수가 집을 짓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는 예뻤다.

ㄷ. ??철수가 역에 도착해 있었다. 이때/그때 영화는 예뻤다.

상태동사가 후행문에 나타날 경우에도 대체로 위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상태동사가 갖는 시간적인 속성이 여타의 동사 분류와 이질성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상기한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시간 지시의 특성은 앞서 2.2.1에서 다룬 후행문의 상적 특성과도 연관된다. 선행문 사건의 시간을 넓게 지시하는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이 비완망상 표지를 취하는 것은, 접속부사어의 시간 지시와 문장의 상적 속성이 서로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문의 한 순간을 포착하는 ‘이때/그때<sub>2</sub>’의 특성은 ‘사태를 하나의 점처럼 바라본다’는 완망상의 개념과 잘 부합한다. 또한 이 특성은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이 배경적 정보를 가지며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은 전경적 정보를 가진다는 본고의 가설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28)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 예는 ‘용인되지만 본인이 사용하지는 않을 정도’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다만 아주 자연스럽다고 보는 의견(1명)도 있었다.

29) Talmy(2000: 315-316)에서는 전경과 배경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경은 미지의(unknown)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가지며, 이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작으며, 관심·적절성이 더 크고 한 번 지각되면 더 현저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반해, 배경은 기지(known)의 특성을 갖고 비이동적(more permanently located)이며, 상대적으로 크고, 관심·적절성이 더 작으며, 전경이 지각되면 더 배경화된다는 특성을 띤다. 그러므로 이 특성은 배경 정보를 유도하는 ‘이때/그때<sub>1</sub>’

## 2.2.3. 정보구조와 정언문/제언문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선후행문이 나타내는 상적 특성, 부사들과의 공기 가능성, 동사 부류, 시간 지시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가 나타내는 의미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예문들을 통해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차이를 보일 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던 요인이 하나 있다. 그것은 후행절의 주격조사에 ‘이/가’가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은/는’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19)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는 이미/한창 결승점에 도착하고 있었다.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가 이미/한창 결승점에 도착하고 있었다.

ㄴ.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그때<sub>2</sub> (\*이미/한창) 여우가 나타났다.

ㄴ’.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그때<sub>2</sub> 여우는 나타났다.

(19ㄱ)의 후행문은 연속상을 취하고 있으며 ‘이미/한창’과의 공기도 자연스럽다. 즉, ‘이때/그때<sub>1</sub>’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격조사로 ‘은/는’이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19ㄱ’)과 같이 ‘이/가’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19ㄴ)의 경우 ‘이미/한창’과의 공기가 어색하고 시간적 특성도 선행문 사건의 한 순간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그때<sub>2</sub>’에 해당된다. 이 경우 후행문의 주어에는 ‘이/가’가 사용되며 (19ㄴ’)과 같이 ‘은/는’으로 바꿀 경우 맥락이 잘 주어지지 않는 한 상당히 어색해진다. ‘이때/그때’와 주격조사들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면,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

---

의 시간 지시가 상대적으로 크고, 전경 정보를 유도하는 ‘이때/그때<sub>2</sub>’의 시간 지시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일치한다.



에는 ‘이/가’와 ‘은/는’이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이때/그때<sub>2</sub>’의 경우에는 ‘은/는’이 나타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이 점을 토대로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가 사용된 문장에 대해 정보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기로 하자.

(20)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는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  
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영희는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

ㄷ.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는 이미/한창 결승점에  
도착하고 있었다.

(20ㄱ)의 후행문의 ‘이때/그때’는 결과상과 함께 나타나 있기에 ‘이때/그때<sub>1</sub>’에 해당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20ㄴ)과 같이 조사 복구가 가능하고, (20ㄷ)과 같이 ‘이미, 한창’ 등이 사용될 수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들 예문의 후행문 주어 ‘영희’는 화제 표지인 ‘은/는’과 함께 나타나 있으므로 이것이 정언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어에 ‘이/가’를 설정하게 되면 아래와 같다.

(21)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가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  
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그때 누가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는가?

☞ 그때 영희가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

ㄷ.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 ??그때 영희가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

ㄹ.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결승점에는 영희가 도착해 있  
었다.

그런데 (21ㄱ)의 후행문은 만약 맥락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

소 뜯금없는 문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 문장이 보다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즉, (21ㄱ)의 후행문을 대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21ㄴ)과 같은 질문이 상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1ㄱ)의 후행문에서 ‘이/가’가 확인초점 표지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정보초점의 표지라면 (21ㄷ)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21ㄱ)의 후행문은 확인초점과 화제적 정보를 포함하는 정언문에 해당한다. 한편, (21ㄱ)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21ㄷ)과 같이 ‘은/는’이 결합된 화제 요소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후행문은 정언문이 된다.

요컨대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에는 선행 맥락과의 연결고리인 ‘화제’와 새로운 정보에 해당되는 ‘초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그때<sub>1</sub>’이 사용된 구문에서는 화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 ‘이/가’만이 사용되었더라도 확인초점을 포함하는 정언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때/그때<sub>2</sub>’에 해당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22) ㄱ.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그때 (\*이미/한창) 여우가 나타났다.
- ㄱ’.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sup>??</sup>이때/그때 여우는 나타났다.
- ㄴ.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sup>\*/??</sup>이때/그때 수풀에는 여우가 나타났다.
- ㄴ’.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그때 수풀에는 여우가 나타나 있었다.
- ㄴ”.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에/그때에 수풀에는 이미 여우가 나타나 있었다.

(22ㄱ)은 후행절에 상 표지가 오지 않으며 ‘이미, 한창’과 공기하는 것도 어렵다. 즉, 이 경우 ‘이때/그때’는 ‘이때/그때<sub>2</sub>’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격조사를 ‘은/는’으로 교체하면 (22ㄱ')과 같이 상당히 어색한 문장이 된다. 또한 (22ㄴ)처럼 해당 문장에 화제 표지 ‘은/는’이 결합한 요소를 삽입하면 부자연스러워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2ㄴ')처럼 후행절에 결과상을 삽입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이때/그때’는 (22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때/그때<sub>1</sub>’에 해당되므로, ‘이때/그때<sub>2</sub>’의 예로 인정될 수 없다.

- (23)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는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sup>30)</sup>  
 ㄱ".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는 새총으로 철수를 쏘고 있었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관중석에서는 영희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관중석에서는 영희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고 있었다.

(23ㄱ)의 ‘이때/그때’ 역시 ‘이때/그때<sub>2</sub>’에 해당되는데, 주격조사를 ‘은/는’으로 대치한 (23ㄱ')은 조금 어색하다. 이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3ㄱ")과 같이 연속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이때/그때’는 ‘이때/그때<sub>1</sub>’로 해석된다. (23ㄱ)의 문장에서 화제 표지 ‘은/는’이 결합된 요소를 삽입하면 (23ㄴ) 정도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상당히 어색하다.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23ㄴ')과 같이 후행문에 연속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당연히 이 경우 ‘이때/그때’는 ‘이때/그때<sub>1</sub>’로 해석된다.

30) 설문 결과 이 예는 대체로 맥락이 주어지면 자연스럽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만 이 예가 자연스러워지는 맥락에서는 ‘이때/그때’에 조사 ‘에’를 복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이때/그때<sub>2</sub>’의 예가 아닌 ‘이때/그때<sub>1</sub>’의 예에 해당된다.

정리하자면 ‘이때/그때<sub>2</sub>’ 후행문의 주격조사로는 ‘이/가’가 사용되며 ‘은/는’은 크게 제한된다. 또한 ‘은/는’을 포함한 요소가 들어가는 것도 제한된다. 이는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에는 화제로 볼 요소가 없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31)</sup>

그렇다면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에 나타난 ‘이/가’가 정보초점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초점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4) ㄱ.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ㄱ'.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여우가 나타났어요.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다. 이때/그때 영희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다.

ㄴ'. 철수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지? 영희가 새총으로 철수를 쏘았어요.

(24)는 앞서 제시한 ‘이때/그때<sub>2</sub>’가 사용된 구문들이다. (24ㄱ)의 후행문 주어에 나타난 ‘이/가’의 정체를 찾기 위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24ㄱ')과 같이, 이야기를 진행할 때 해당 문장을 유도하는 질문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

31) 전영철(2013a: 45-47)에서는 불특정성 조건에 대해 다루면서 발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불특정적인 개체가 발화를 통해 담화의 범위 내로 들어오게 하는 ‘태어나다, 발생하다, 짓다, 결성하다’ 등의 술어를 ‘존재 단언 술어’라 하였다. 그리고 불특정적인 주어를 요구하는(특정성이 제약되는) 존재 단언 술어가 사용되면 화제 표지 ‘은/는’이 제약된다고 밝혔다. 본고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이때/그때 여우가 나타났다’의 ‘나타나다’ 역시 일종의 존재 단언 술어라 볼 수 있으며, ‘은/는’의 제약이 이로부터 오는 것이라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쏘다, 때리다’ 등 술어 자체에 화제 표지 제약이 없는 동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후행문의 ‘은/는’이 제약되는 현상은 술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이때/그때<sub>2</sub>’의 속성이라 보는 편이 타당하다. 또한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에서는 ‘나타나다’가 완망상 표지 없이 사용되기 어려운 데에 비해 ‘이때/그때<sub>2</sub>’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후행문에 ‘은/는’이 제약되는 ‘이때/그때<sub>2</sub>’의 속성이 존재 단언 술어의 속성과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이는 (24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24ㄴ')과 같이 ‘무슨 일이 벌어졌지?’ 정도의 질문을 상정할 수 있다.<sup>32)</sup> 즉,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에서 ‘이/가’는 정보초점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후행문은 제언문으로 판단된다.<sup>33)</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이때/그때<sub>1</sub>’의 경우 후행문은 화제와 초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언문의 구조를 띤다. 반면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은 전체가 하나의 초점 정보로 이루어진 제언문에 해당된다.

정언문 구조를 가지는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은 정보구조적으로 화제와 초점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화제란 선행 내용과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으며 지시적으로도 주어진, 이미 알려진 정보에 해당된다. 즉,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은 선행 내용에서 이미 알려진 어떤 대상에 대한 기술을 이루고 있기에, 그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문장 전체가 초점 정보로 이루어진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에는 화제, 즉 선행문과의 연결고리가 없다. 그렇기에 선행문 사건과 동시간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면을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32) 이에 대해, 해당 문장을 답으로 유도하는 질문으로는 ‘그때 누가 나타났지?’, ‘그때 누가 철수를 새총으로 쏘았지?’도 가능하며 이 경우 후행문의 주어는 확인 초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타난다, 누군가가 철수를 새총으로 쏜다’는 전체가 있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구조가 상정되어야 한다.

예)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지?  
여우가 나타났어요.

이 경우, ‘누가 나타났지?’라는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후행문으로 ‘누군가가 나타났다’가 나와야 하며, 결국 이에 대한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났지?’로 되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반론은 유효하다고 보기 힘들다.

33) 사실 (24ㄱ)의 후행문은 ‘여우가 나타난 것은 이때/그때였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즉, ‘이때/그때’가 초점 성분(확인초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관계적으로 주어진 요소(화제)가 되는 구조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예’의 복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후행문의 정보구조 역시 정언문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때/그때’이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에 이는 후행문으로 제언문을 취하는 ‘이때/그때<sub>2</sub>’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은 서사 측면에서 배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비해,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은 전경화된, 서사 측면에서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정보를 갖는다.

### 3.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접속부사 ‘이때/그때’를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접속부사어로 사용되는 ‘이때/그때’는 ‘이때에/그때에’에서 조사가 생략된 형태인 것으로 흔히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때/그때’ 중 ‘이때에/그때에’의 조사생략형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이때/그때<sub>1</sub>’, 후자를 ‘이때/그때<sub>2</sub>’라 하였다. 전자의 경우 ‘이때에/그때에’로 자연스럽게 대치가 가능하나, 후자를 ‘이때에/그때에’로 대치하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진다. 이들은 문법성을 갈라놓을 만큼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선호도 또는 수용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2) 우선 ‘이때/그때’가 현재시제보다는 과거시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그때<sub>1</sub>’의 경우 후행문에 연속상, 결과상이 오는 것이 가능하지만(비완망상), ‘이때/그때<sub>2</sub>’는 이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완망상). 또한 ‘이때/그때<sub>1</sub>’은 ‘이미, 한창’과 같은 부사와 자연스럽게 공기가 가능하지만, ‘이때/그때<sub>2</sub>’는 이들과의 공기가 어렵다. 이러한 특징은 완망상이 전경과, 비완망상이 배경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일치한다.

3) 다음으로 선후행문에 여러 부류의 동사들을 배치하면서 ‘이때/그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때/그때<sub>1</sub>’은 지시하는 시간 간격이 넓은 편이지만, ‘이때/그때<sub>2</sub>’는 선행문 사건의 한 순간을 좁게 포착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점 역시 전경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배경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성에 부합한다.

4) 마지막으로 ‘이때/그때’의 후행문에 대해 정보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그때<sub>1</sub>’의 경우, 후행문의 주어에 ‘이/가, 은/는’이 모두 허용되며 ‘은/는’을 포함하는 요소가 삽입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에서 주어는 대체로 ‘이/가’만을 취하며 ‘은/는’을 취하는 요소가 나타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은 화제-초점의 구조를 가진 정언문이며,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은 초점 정보만을 가진 제언문이라 주장하였다. 화제 요소는 선행 내용과의 연결고리이므로 정언문에 해당되는 ‘이때/그때<sub>1</sub>’의 후행문은 배경적인 정보를 나타내며, 제언문인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은 스토리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는 전경적 정보를 갖는다.

5)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이때/그때<sub>1</sub>’의 속성인 ‘비완망상, 넓은 시간 지시, 정언문’은 배경화와 관련되고 ‘이때/그때<sub>2</sub>’의 속성인 ‘완망상, 좁은 시간 지시, 제언문’은 전경화와 관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sup>34)</sup>

본고에서 밝힌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34) 심사과정에서 후행문의 시간 지시 특성과 정보구조의 특성이 두 ‘이때/그때’의 의미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에’에서 오는 것인지 재고해볼 여지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나, 본고에서는 일단 ‘에’의 속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 ㄱ. 혜성이 13시 55분 25초에 나타났다.

ㄴ. A: 무슨 일이야?

B: 새벽에 집이 무너졌어.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는 ‘이때/그때<sub>1</sub>’은 넓은 시간 간격을 지시하며 후행문에 정언문이 나타난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ㄱ)의 ‘에’는 좁은 시간 간격을 지시하는 표현에 결합하였고, 존재 단언 술어 ‘나타나다’와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ㄴ)의 B의 발언에서는 제언문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로보아 ‘에’ 자체에 ‘넓은 시간 지시, 정언문’의 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3〉

	이때/그때	
기본적인 의미	선행문 사건과 후행문 사건이 동시간적	
특성에 따른 나뉨	이때/그때 <sub>1</sub> (명사)	이때/그때 <sub>2</sub> (부사)
조사 ‘에’ 복구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움
후행문의 상적 특성	비완망상	완망상
부사 ‘이미, 한창’과의 공기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움
시간 지시의 특성	지시하는 시간 간격이 넓음 (≒‘그동안’)	선행 사건의 시간적 지점을 좁게 포착 (≒‘그 순간’)
후행문의 정보구조적 특성	정언문	제언문
후행문의 인지적 특성	배경	전경

사족으로,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과 향후의 연구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려 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이때/그때<sub>1</sub>’과 ‘이때/그때<sub>2</sub>’의 구분을 시도하였는데, ‘이때’와 ‘그때’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화자의 시점이 선행행문 사건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에 따라 ‘이때’와 ‘그때’가 각각 선호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또한 본고의 2.2.3에서는 ‘이때/그때<sub>2</sub>’의 후행문이 전경적 정보를 나타내며 서사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는 경향이 보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본고에서 접한 소규모의 예들에서만 확인된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말뭉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많은 경우들을 검토한 후에야 좀 더 확정적인 단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절 단위 이상을 연결하는 요소들, 즉 접속부사 전반이나 연결어미 등에 대해 살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의 연구가 될 것이기에 후속 연구과제로 기약해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김선효(2005), 문장부사 설정에 대한 재고, 《언어와 정보사회》 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소, 26-54.
- 김선희(1987), 현대국어의 시간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신(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1, 박이정, 43-65.
- 김윤신(2006)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상,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31-61.
-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신서인(2010), 부사성 명사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191-234.
- 신서인(2011), 문장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 61, 국어학회, 207-238.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 박혜승(2016), 한국어 부사 ‘이미’류와 ‘아직’류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유종(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장기열(2003),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지행정연구》 19,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75-194.
- 장채린(2013), 시간부사 ‘이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42, 한국어의미학회, 269-295.
-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74, 한글학회, 171-200.
- 전영철(2009), ‘이/가’ 주제설에 대하여, 《담화와 인지》 16, 담화·인지언어학회, 217-238.
- 전영철(2013a),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영철(2013b), 한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국어학》 68, 국어학회, 99-133.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 杜林林(2014),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謝禮(2014), 한국어 존재문의 의미와 통사 연구, 《국어연구》 242, 국어연구회.
- Dowty, D. R. (1979), *Worl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 Reidel

Publishing Company.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1: Concept Structuring Systems*, The MIT Press.

Tsuji, Y. (2004), 임지룡 외 옮김,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880-6031

E-mail: stonesbs@naver.com

투고 일자: 2017. 01. 12.

심사 일자: 2017. 02. 18.

게재 확정 일자: 2017. 03. 08.

# A Study on the Conjunctive Adverbial '이때/그때'

[Seo, Ban-Seoc]

접속부사어 '이때/그때' 연구 [서반석]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conjunctive adverbial '이때/그때' in multilateral perspectives. The adverbial '이때/그때' is used to consider as an adverbial '이때에/그때에' and regarded as an elliptic form that omits the adverbial case marker.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이때/그때' vary, thus in this study, they were labeled as '이때/그때<sub>1</sub>' and '이때/그때<sub>2</sub>'.

In this paper, I argue that '이때/그때<sub>1</sub>' is related to the background information, and '이때/그때<sub>2</sub>' is associate with the foreground information. Sentences with '이때/그때<sub>1</sub>' are generally accompanied with an imperfective aspect; however, sentences with '이때/그때<sub>2</sub>' accompany a perfective aspect. '이때/그때<sub>1</sub>' refers to a wide temporal space of the event of the preceding sentence; however, '이때/그때<sub>2</sub>' refers a temporal spot in the event of the preceding sentence. In addition the sentence following '이때/그때<sub>1</sub>' is an categorical sentence, which has a 'topic-focus' structure within it. In contrast, the sentence following '이때/그때<sub>2</sub>' is a thetic sentence, which only has focus information.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이때/그때<sub>1</sub>', which are 'being accompanied with an imperfective aspect, referring a wide temporal space, and occurring with an categorical sentence', are related to the background in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이때/그때<sub>2</sub>', which are 'being accompanied with an perfective aspect, referring a temporal spot, and occurring with an thetic sentence', are related to the foreground information.

Key words: conjunctive adverb, aspect, perfective, imperfective, information structure, categorical sentence,thetic sentence, figure, ground